

索引의 意義와 類型別 特性

朴 俊 植

〈啓明大學 專講〉

■ 編輯者註：本稿는 全國圖書館大會發表論文을 要約한 것임.

국내 도서관계 전문인들을 모시고 발표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협회당국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

오늘날 정보폭발이라는 용어가 실감이 날만큼 각 주제분야에서 생산되는 문헌정보가 급증하고 학문과 사회가 전문화됨에 따라 한 주제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안내 주는 색인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내의외의 각종 도서관에서는 색인의 작성이 주된 임무로 등장하게 되었고 인쇄된 색인저들도 많이 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실무면에서의 발전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면에서의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론적 체계화가 초보적 단계에 있는 듯 하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번 「색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라는 학위논문에서 이론적 체계화와 역사적 연구를 시도한바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 발표는 색인에 관한 깊이 있는 이론적 탐구가 아닌 색인의 의의와 기능, 유형별 특성등 일반적인 요소들에 관해 지식을 나누고자 한다.

색인의 어원과 초기의 의의

색인이란 영어 index에 대한 역어이다. “index는 라틴어 *indicare*에서 나온 명사로서 처음엔 ‘알게 해 준다’ ‘지적하다’ 등의 뜻”¹⁾을 가지고 있었거나 ‘집게 손가락(*fore-finger*)을 의미했는데 이는 집게손가락을 의미했는데 이는 집게손가락이 가르킬때 쓰여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²⁾ 오늘날 동, 서양도서관에서 참조표시에 색인기호인 집게손가락을 그려 넣는 습관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라 추측된다.

index가 집게손가락이란 뜻으로는 1398년 처음 쓰였

다는 기록이 있고,³⁾ 비교적 진전된 개념 즉 “책속의 항목을 지시해주는 뜻으로는 1578년 Dyte의 *Dodoens*란 책속에서 ‘Index Latinorum Nomimum’이라는 구절에서 비롯된다”⁴⁾는 설이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1555년 파리에서 간행된 서지 *Nomanclator Insignium Scriptorum*에서 副題로 이미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⁵⁾

한편 중국에서의 어원을 살펴보면; “索은 ‘求하다’라고 되어 있다. 「集韻禮曲禮」에 보면 ‘大夫以索牛’라고 쓰고 그注에 ‘索求得而用之’라 하였으니 곧 ‘求하여 쓴다’는 뜻이 된다”⁶⁾ “引은 相牽으로 ‘끌어 당기다’라는 뜻이니”⁷⁾ 語義에 따른 색인의 개념은 ‘求하여 끌어 당기다’는 뜻이 된다.

고대 중국에서 索引이란 단어가 함께 쓰인 문헌이 있다. “漢 焦延壽의 「易林」에 ‘愛我嬰女索引不得’이라 하였는데 역시 牽引(끌어 당기다)의 뜻으로 쓰였고 결코 오늘날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다”⁸⁾

우리나라의 경우 색인이란 항목이 사전에 수록되기는 1936년 발행된 文世榮의 「朝鮮語辭典」이 처음이었다. 사전에 낱말이 수록된다함은 그 용어가 이미 통용되고 있을 경우라는 사실을 생각할때 그 이전에 이미 이 용어가 쓰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1920년판 조선총독부발행 「朝鮮語辭典」에서 본문의 항목으로는 수록되지 않고 附두에 ‘諺文索引’ ‘漢字劃索引’ ‘漢字音

- 1) Shipley, Joseph T. *Dictionary of word origin*, 2nd. ed. N.Y. Philosophical Library Inc. 1945.
- 2) *Oxford English Dictionary*. London, Oxford Univ. Pr. 1961
- 3), 4) loc. cit
- 5) Taylor, Archer. *General subject indexes since 1548*.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 1966, p.54.
- 6) 辭海 下冊, 臺灣, 中華書局, 民國 58(1969) p.63.
- 7) 辭海 上冊, op. cit., p.228.
- 8) 鄭恒雄. 中國索引의 發展過程, 沈喆俊 譯. 도서관 30년 1호 (1975. 1) p.53.

索引'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따라서 1920년대에 이미 색인이란 용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사용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단지 그 이전엔 색인이란 용어보다는 '檢字' '檢索' 또는 '字劃檢索' 등의 말을 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색인이란 말이 처음 쓰일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색인'이라고 쓰거나 발음하지 않고 '삭인'이라고 쓰고 그렇게 발음했던 것 같다. 文世榮氏의 사전에서도 '삭인' 항목에 해설되어 있고 '索引' 항목에선 '삭인을 보라'는 참조가 되어 있을 따름이었다. 이는 당시만 하여도 '색인'이 우리말로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고 중국식 발음 즉, '索은 思郝으로 읽은 은矣忍으로' 나에서 연유한 듯 하다.

색인의 현대적 의미

현대적인 색인의 개념에 대해 O.E.D.나 Webster 등에서는 내용목차나 항목색인 또는 서목(書目) 등의 좁은 의미에서 서술되어 있는데 가장 적절한 정의는 영국표준화기구에서 1964년 「도서, 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색인작성을 위한 권고」(Recommendation for the preparation of indexes for books, periodicals and other publication)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권고에서는 "색인은 문헌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 안내 또는 집서, 연속간행물을 포함한 기록자료에 대한 체계적 리스트로서 알파벳순이나 다른 약정된 순서로 배열된 표목이 있고 개개의 항목이 소재한 위치를 지시해 주도록 참조되어 있는 것"⁹⁾이라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ALA용어집, KLA 용어집, Harrod의 용어집, 일본의 용어사전등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색인은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에 따라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각 용어사전을 종합해 보면 색인은 내용색인, 기사색인, 도서목록색인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그 의미를 살펴 본다.¹⁰⁾

내용색인 : 한 문헌에 수록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내용중의 요어(要語)를 표출하여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고 본문에서의 위치를 지시한 것. 여기에는 내용목차, 권말색인, 요어색인등이 포함된다.

기사색인 : 전집 또는 연속간행물에 수록된 개별적 기사를 기사단위로 분석, 체계화함으로써 내용, 집필자, 논제명, 페이지수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여기에는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총서·집성색인, 신문색인등이 포함된다.

도서목록류색인 : 이는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의적정보를 수록하는 것으로서 문헌의 서지적정보를 일

정한 편성, 배열법에 따라 체계화함으로써 원문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도구, 오늘날 분류색인의 형식을 취한 목록류가 이 범주에 속한다.

색인의 기능

이상 제시된 몇가지 정의를 종합해 볼때 색인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검색 또는 지시의 기능이다. 각 항목 또는 표목이 수록된 원문의 소재나 위치를 지시하므로써 원문 또는 그 내용을 검색하도록 지시해 준다.

둘째는 선택의 기능이다. 이는 나열된 여러가지 자료 가운데서 어떤 자료를 선택해서 읽을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기능이다. "자료를 검색하는데 있어서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취사선택하도록 해주는 기능이 지시의 기능보다는 우선한다고 할 수 있으며 지시의 기능은 이용하고자하는 항목이 선택된 후에 작용되는 차후의 기능인 것이다"¹¹⁾

이러한 기능의 충족을 위해서 색인에는 서지적 사항을 조직화하는 편목법, 주제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분류법,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므로써 검색을 돕는 배열법등의 제 요소가 합성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색인의 종류와 특성

색인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조직도를 예시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첫번째의 내용색인은 요어색인(要語索引)과 사항색인이 포함되는데 모두 단행본속에 수록된 내용이나 항목을 안내해 주고 있다. 요어색인은 영어의 Concordance에 대한 역어로서 "성서나 저작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이나 말을 체출하여 문장의 전후관계나 사건의 상황을 알려 주기 위하여 일정한 순서하에 배열하고 있는 것이다."¹³⁾ 이는 서양색인의 기원을 이루는 것으로서 원래 성경에 수록된 말을 손쉽게 찾거나 인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bible concordance로 출발했으나 오늘날엔 유명한 작자의 작품에 대해서도 만들어 지고 있다(예

9) Harrod, Leonard M. *The librarians' glossary*. London, Andre Deutsch, 1971. p.324.

10) 朴俊植. 索引에 관한 歷史的考察. 서울. 中央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75. 12.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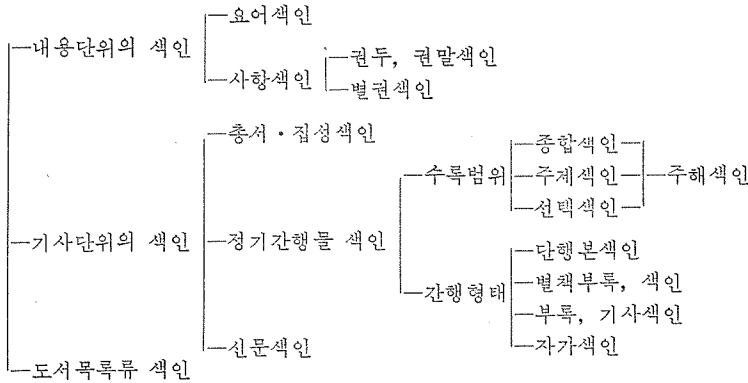
11) loc. cit.

12) Swanson, Don R. *Indexes and Indexing*. in: *Encyclopedia Britannica*.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Inc. 1970. p.244

13) 朴俊植 op. cit., p.16.

14) Harrod, Leonard M. op. cit., p.171.

색 인 의 조 직 도



shakespeare concordance 사항색인은 본문에 수록된 특정한 사항을 검색하도록 그 위치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내용목차, 권두·권말색인, 별편색인등으로 구성된다.

두번째의 “기사색인은 1683년 암스텔담에서 발행된 Beughem의 *La France Scavante*를 기원으로 하여¹⁵⁾ 17세기 말의 역사를 지나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이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므로 짧은 연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도서관계에서 색인이라하면 곧 기사색인을 지칭할만큼 중요한 요소를 등장하게 되었다. 기사색인에는 총서·집성색인, 정기간행물색인, 신문색인의 3종으로 나눌 수 있다.

총서·집성색인은 총서, 전집, 선집등과 같이 몇개의 논문이나 작품으로 이루어진 저작에서 각각의 논문 및 작품단위로 항목을 뽑아 일정한 체계하에 배열한 것이다. 이는 총서나 전집, 선집등에 대한 분출로서 도서목록에서 찾을 수 없는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된다.

잡지기사색인이라고 통용되는 정기간행물색인은 정기간행물을 수록된 논문 또는 기사단위로 체계화함으로써 내용, 집필자, 논제명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정기간행물에 대한 학계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색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여기에는 다수의 학문영역을 수록한 종합색인, 단일주제만 취급한 주제색인, 또 이용자의 실질적인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학술성이 없는 잡문기사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며 중부발표된 것 중에서 선택하여 수록하는 선택색인¹⁶⁾ 등이 포함된다. 문헌의 증가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종래 포괄적으로 수록하던 색인의 편성방침이 재평가될 시기에 있다고 하겠다. 한편 현시점에선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될지 모르나 금후의 색인은 초록형태의 색인(annotated index)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기사색인에는 마지막으로 현행정보나 최근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용한 신문색인이 있다.

색인의 세번째 유형인 도서목록류색인¹⁷⁾은 위의 두 가지 색인이 자료속에 포함된 개별적 내용이나 기사를 분석, 체계화함으로써 검색할수 있도록 한데 반해 문헌의 외적정보 즉, 각 도서나 정기간행물의 서지적 사항만을 일정한 체계하에 배열한 것이다. 분류색인의 형식을 취한 목록류나 CBI, Bibliographical Index,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 Directory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도서목록류색인을 색인의 범주속에 넣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나 주제를 세분하고 그 아래에 서록을 일정하게 나열하므로써 원하는 주제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서지적사항에 따라 원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분류목록(classified catalog)은 분명히 색인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초기의 색인들은 모두 도서목록류색인들이 주종을 이루었는데 19세기 William Poole의 색인(an alphabetical index) 이후 정기간행물 색인이란 새로운 영역의 기사색인이 본격화되면서부터 도서목록류색인과 정기간행물색인이 점차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색인의 유형은 이외에도 배열하는 방법에 따라 저자색인, 서명색인, 주제색인, 사전체색인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간행형태에 따라 도서를 대상으로 했을 경우 권두·권말색인, 별편색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단행본색인, 별책부록색인,

15) Taylor, Archer. op. cit., p.179.
 16) 선택색인이란 용어는 Selected bibliography라는 용어에서 힌트를 얻어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17) 도서목록류색인이란 용어는 적당한 용어가 생각나지 않아 필자가 임의로 쓴 것이니 적당한 용어가 쓰여지길 바란다.

부록 및 기사색인, 자가색인(自家索引=Home index)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색인의 일반적인 사항들에 관해 알아 보았다. 우리나라도 해방이후 기사색인의 편성방법이 많이 발전해 왔으나 아직까지 이론과 실제적인 면에서 더욱 연구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색인과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관계요로에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는 각급 도서관에 대한 제언이다. 각급 도서관은 그 관의 목적과 성격에 알맞는 방침과 범위를 정하여 입수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해 자가색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수많은 도서관가운데서 소수의 도서관만이 자가색인을 만들어 봉사하고 있는줄 안다. 진정한 의미의 깊이있는 참고봉사란 색인과 같은 서지적도구의 완비없이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색인작성에 소요되는 노력이나 인원, 시간등이 큰 난관이 되긴 하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것이다. 스스로 개척하므로써 봉사영역을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도서관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제언이다.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기간행물 기사색인」을 2,3년 혹은 5년을 단위로 하여 각 분야별로 누가색인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이 작업을 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이러한 작업

이 전체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국가도서관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국립의 도서관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작업은 국립중앙도서관과 상호협력한다면 현재의 예산, 인원으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나은 방안이 모색되도록 양관이 협력한다면 우리나라의 색인사업이 크다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셋째는 색인작성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도서관협회에 대한 제언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표준화기구나 국제표준화기구등에서 색인작성의 표준화를 위한 여러가지 권고안이 제시되어 국가적, 국제적 표준화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급 도서관에서 작성되는 색인이나 인쇄된 색인지들의 기술형식이 너무나 다양각색이고 통일화된 지침이 없어 일선사서들과 색인이용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인은 연건 국회도서관보에 「기사색인 작성의 표준화를 위한 시론」이란 글을 기고하여 기술형식만이라도 국내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¹⁸⁾ 이러한 표준화는 도서관 협회가 주관하여 협회의 한 분과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권고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 권고안은 일선 사서들이나 색인작성자들의 업무를 도와 줄 것이며 색인이용자들의 혼란을 막아줄 것이다.

18) 朴俊禧, 記事索引 作成의 標準化를 위한 試論. 國회도서관보 Vol.12 No.7 (1975. 10. 11) pp.10~17.

● 會員倍加 運動을 展開하고 있습니다.

圖書館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內唯一의 圖書館聯合體인 本協會는 全國에 있는 보다 많은 圖書館 및 圖書館人들이 本會 趣旨에 贊同하여 參與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會員 여러 분께서는 아직 加入치 않고 있는 圖書館이나 司書에게 會員加入을 勸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員의 種類

個人會員 : 圖書館職員 및 圖書館學을 履修한 사람

團體會員 : 圖書館, 學校 기타 圖書館 施設을 가진 團體

入會節次

所定樣式에 의한 入會 申請書를 記載 捺印하고 會費를 納付하면 會員證을 交付받게 됩니다.